



의안번호	제 2011 - 12호
의 결 연 월 일	2011. 6. 14. (제35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40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	1
나.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검토	5
II. 향후 일정	6

별첨	정준화,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검토”
	심재철, 조석영, “제3기 양형기준 설정 절차 및 대상에 관한 의견”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의견 - 통계자료 포함”

I. 제40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1. 5. 23.(월) 16:00 ~ 19: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혜정, 박영식, 범현, 심재철, 이정훈, 이주원, 조석영,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
-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검토

4. 회의 요지

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

- 각 범죄군 별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순번	범죄군	의견 및 근거
1	교통	■ 교통{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을 대상범죄에 포함하는 데 이견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인자로만 반영하자는 의견(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범죄에 있어서 도교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인 경우가 많음 - 징역형이 선고된 도교법 위반사건의 빈도수가 낮음 ○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후 미조치와 같이 독립적으로 구공판되는 경우도 있음
2	상해, 폭행,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폭행, 협박을 대상범죄에 포함하는 데 이견 없음 ■ 양형기준 설정방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폭행, 협박범죄에 관하여 각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 ○ 상해, 폭행, 협박범죄를 ‘폭력범죄군’로 묶어서 통합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
3	주거침입, 체포, 감금,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범죄군’에 주거침입, 체포, 감금, 강요까지 포함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임 -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이 용이함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범죄와 범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일괄하여 무리하게 ‘폭력범죄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모두 범죄발생빈도가 매우 낮고(34위 이내에 들지 못함),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음(주거침입, 강요) -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들이어서 상한보다 하한이 중요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도 설정된 범죄의 하한이 적용되니 충분함 -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
4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죄에 포함하는 데 이견 없음
5	손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폭행, 협박이 포함된 ‘폭력범죄군’에 손괴죄도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폭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임 -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이 용이함 ▷ 별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폭행, 협박은 대인적 범죄인데 반하여, 손괴는 대물적 범죄라서 성격이 다소 다름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고, 범죄 발생빈도도 높지 않음(22위) - 죄질이 중하지 않은 범죄들이어서 상한보다 하한이 중요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도 설정된 범죄의 하한이 적용되니 충분함 -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
6	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에 해당되므로 필요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연쇄방화범 등 국민적 관심 고려 <p>○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발생빈도가 매우 낮음
7	장물	<p>■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p> <p>○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발생빈도가 낮고, 과실범의 경우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음 <p>○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결한다는 의미가 있음 - 고의범의 경우 전문성이 있으므로 죄질이 중함
8	선거	<p>■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p> <p>○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관심도와 사건발생빈도가 높음 - 당선무효형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 - 범죄유형이 다양하기는 하나, 특정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설정하면 가능함 - 정치적 부담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 - 일정상 촉박하다거나 정치적 부담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적용되지 않는 일정으로 제3기 후반부에 설정작업을 진행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음 <p>○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일관된 양형기준 제시 어려움 -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은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온 양형기준체계와 배치됨 - 형사재판의 부수적 결과인 당선무효 여부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부적절 - 총선,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간섭의 우려 있어 부적절 - 2012. 4. 11. 실시 예정인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1. 연말까지 양형기준 설정이 완료되어야 할 것인데,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양형기준이 부실화할 우려도 있음
9	조세	<p>■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p> <p>○ 조세포탈 등 일부 범죄유형만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칼라범죄이므로 설정 필요성 높음 <p>○ 조세범죄를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액수만으로 형량이 거의 결정되므로 설정 필요성 낮음
10	금융·경제범죄	<p>■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p> <p>○ 형법과 특별법상 배임수증재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과 특별법상 배임수증재 외에 <u>알선수증재까지 포함</u>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p>☞ ‘자본시장법위반죄(구 증권거래법위반죄)’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일단 통계 또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후 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음</p>
11	병역	<p>■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유형이 매우 다양함 - 양형편차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 범죄임 ○ 일부 범죄만 포함하자는 의견(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발생빈도 높고(12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음 - 주요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하면 됨
12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소수)
13	사법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소수)
14	명예·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 대상범죄에 포함하자는 의견(소수)
15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짐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분야인데다 기본적으로 민사 또는 특허사건적 성격을 띠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범죄만 포함하자는 의견(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경쟁, 기술유출 관련 범죄유형은 양형기준 설정 필요 있음
16	환경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데 이견 없음
17	근로기준 법위반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데 이견 없음
18	변호사법 위반	■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데 이견 없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이후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서면
에 의한 의견조사(설문내용은 별지 참조)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제3기 양형기준 설정 우선순위 의견조사결과]

범죄군	3기 대상범죄 포함 찬성	우선순위			비 고
		높 음	보 통	낮 음	
교통	11	10	1	0	
상해	11	9	2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범죄군으로 취급 : 8 (이 경우, 7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있음) ○ 각각의 범죄군으로 취급 : 3
폭행	11	9	2	0	
협박	11	9	2	0	

공갈	11	6	5	0	
손괴	5	2	3	6	
장물	3	0	4	7	
방화	8	2	5	4	
선거	7	4	2	2	제외 견해 : 3
배임수(증)재	10	2	8	1	
조세	5	3	2	5	제외 견해 : 1
지적재산권	3	0	3	7	제외 견해 : 1
병역	1	0	1	10	
환경	0	0	0	11	
변호사법위반	2	0	2	9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0	0	0	11	
사법방해 (증거훼손)	0	0	0	11	
명예·신용범죄	2	0	2	9	

☞ 우선순위 : 높음(4위 이상), 보통(5위 ~ 8위), 낮음(9위 이하)

나.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검토

○ 제3기 양형기준의 구체적 설정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1안] 임기 말에 통합하여 의결·시행하자는 의견(다수)

- ① 전·후반기로 분리시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업무량의 예측도 힘들며, 양형기준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②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형법 개정 등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 설정 시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안] 전·후반기로 분리하여 의결·시행하자는 의견(소수)

- ① 양형기준의 조속한 설정을 위해서 분리 의결이 바람직

- ② 종래에도 전반기에 사실상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초안 작성 및 공청회까지 마쳤던바,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전반기 설정시한 준수 가능
- 대상범죄군의 개수에 관하여는 1, 2기와 마찬가지로 8개 정도의 범죄군이 적정하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다만, 미리 개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죄군의 개수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41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35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

[별지] 양형기준 설정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위원 대상 설문조사

1.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면 우선순위는?

☞ ① 교통, ② 상해, ③ 폭행, ④ 협박, ⑤ 공갈, ⑥ 손괴, ⑦ 장물, ⑧ 방화, ⑨ 선거, ⑩ 배임수(증)재, ⑪ 조세, ⑫ 지적재산권, ⑬ 병역, ⑭ 환경, ⑮ 변호사법위반, ⑯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⑰ 증거훼손, ⑱ 명예·신용범죄

2. 폭력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을 경우, 양형기준을 설정할 우선순위는?

☞ ① 폭력(상해, 폭행, 협박), ② 교통, ③ 공갈, ④ 손괴, ⑤ 장물, ⑥ 방화, ⑦ 선거, ⑧ 배임수(증)재, ⑨ 조세, ⑩ 지적재산권, ⑪ 병역, ⑫ 환경, ⑬ 변호사법위반, 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⑮ 증거훼손, ⑯ 명예·신용범죄

3.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전체 범죄군의 범위는?

4. 위 1. ~ 3.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할 기타 의견?